

벨로루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208천 km ²	GDP	547억 달러
인구	9.59 백만명	1인당 GDP	5,705달러
정치체제	대통령제	통화단위	Belarus Rubel
대외정책	러시아와 정치,경제 통합 추진	환율(달러당)	2978.51

-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한 벨로루시는 구소련 연방 시절의 주요 공업지역으로서 1991년 독립 이후에도 정유, 기계, 화학산업 등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음.
- 1994년에 집권한 현 루카셴코(Lukashenko)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등으로 2010년에 4선에 성공하여 강력한 통치기반을 구축하고 소득재분배, 보조금 지급 등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러시아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서방세계와는 부정 선거, 인권 탄압, 언론 통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1년 경제성장세 둔화 예상

- 벨로루시는 2000년대 연평균 7.5%의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기록해 왔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0.1% 수준으로 하락했음. 그러나 2010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기회복세 및 2010년 12월 대선에 대비한 정부의 선심성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에 힘입어 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음.
-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우려

- 2010년 벨로루시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서비스가격 통제 등으로 인해 7.7%에 그쳤으나 2011년 국제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연중 41%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고인플레이션은 특히 2011년 4월 벨로루시 정부가 루블(Rubel)화의 환율변동 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루블화를 미달러화 대비 36% 절하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촉발되었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8.6	10.2	0.1	7.2	2.3
재정수지 / GDP	0.4	1.4	-0.7	-1.8	-1.7
소비자물가상승률	8.42	14.84	12.95	7.74	40.90

자료: IMF, EIU.

□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 2010년 재정수지는 대 러시아 가스수출 가격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 및 외채 도입 등에 힘입어 GDP 대비 1.8%의 소폭 적자를 기록하는 데 그쳤음.
- 벨로루시 정부는 2011년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GDP 대비 3%로 설정했으나 2011년 6월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차관의 지원조건이 2011~13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1.5%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2011년 하반기에는 긴축 재정정책을 도입하여 최대한 차관 지원조건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정부 주도의 폐쇄적인 경제구조 유지

- 1994년 집권한 루카셴코(A. Lukashenko) 대통령은 구소련 시절의 계획 경제 체제 및 제도를 답습하여 정부 주도의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고수하고 있음.
- 2000~08년의 연평균 7.5%의 경제성장은 수입 에너지에 대한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 및 러시아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에 힘입은 높은 투자율에 기인한 것으로, 대외충격에 크게 취약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정유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기계장비, 화학산업 등)와 함께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급가격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0년 1월 러시아와 체결한 원유 공급계약은 벨로루시로 공급하는 우랄산 원유가격의 할인율을 30%에서 15%로 축소했고 천연가스 공급가

격도 2006년 이후 4배 가량 인상되어 상품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2011년 1월에는 벨로루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원유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기준 러시아는 벨로루시 수출의 30.4%, 수입의 54.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임.

나. 성장 잠재력

□ 지리적 요충지로서 정유산업에 강점 보유

- 벨로루시는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주요 도로, 철도, 송유관, 통신시스템 등이 교차하고 있음. 동부지역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와 발트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도로가 벨로루시를 통과하며 러시아는 야말(Yamal)-유럽 가스관 등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 구소련 시절 이후 정유산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의 점진적 도입

- 벨로루시 정부는 민영화법을 개정하고 투자 및 민영화를 주관하는 기관 설립을 위한 대통령령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경제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 분야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러시아로부터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 도입

- 벨로루시는 2011년 6월 러시아로부터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도입했고 1차분인 8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2011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4.4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임.

* 동 차관은 10년 만기(거치기간 3년) 조건으로 지원되었으며 향후 추가인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2011~13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1.5%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75억 달러 상당의 국영기업 정부지분을 매각해야 함.

- 벨로루시 정부는 벨트란스가스(Beltransgaz, 국영 가스관 관리공사), 벨라루스칼리(Belaruskali, 국영 탄산칼륨 제조공사) 등 약 250개의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을 발표했으나 현재 벨로루시의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대부분 국영기업 정부지분은 러시아 기업에 매각될 것으로 전망됨.

□ 벨로루시 중앙은행은 루블화의 평가절하 단행

- 2011년 5월 벨로루시 중앙은행은 루블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4,930루블로 설정하여 36% 평가 절하함. 또한 2011년 1사분기 이후 재할인율을 22%(8월 17일 기준)로 10% 포인트 인상하여 통화가치를 안정화하고 고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미달러당 7,000루블)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2011년 중 루블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절하될 가능성이 있음.

□ 2011~15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추진

- 벨로루시 정부는 경제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수출 촉진 및 수입대체산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1~15년 사회경제개발계획(Program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2011-15)"를 발표했음.
- 동 계획상 벨로루시 정부는 실질임금이 2015년에는 2011년 대비 70~76% 인상되고 GDP 규모가 62~68%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IMF는 개발목표가 과다하게 설정되었고 벨로루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거시경제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의 악화 상태 지속

- 2010년 경상수지 적자폭은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수입이 급등함에 따라 GDP 대비 15.5%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2011년에는 루블화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벨로루시산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는 반면, 수입물품 가격은 크게 인상되어 벨로루시 기업과 국민의 구매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2개월분 수준으로 부족한 편

- 벨로루시는 상품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외국인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2010년 외환보유액이 50억 달러(월평균수입 2.2개월분)에 불과한 수준임.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에 1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한 후 러시아 시장에서 2.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한 바 있음.
- 2011년에는 1월에 8억 달러 상당의 유로본드를 발행했으며,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차관(총 30억 달러) 중 1차분인 8억 달러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 상 수 지	-3,032	-5,230	-6,390	-8,493	-4,077
경상수지 / GDP	-6.7	-8.6	-13.1	-15.5	-8.8
상 품 수 지	-4,042	-6,237	-6,957	-9,118	-4,138
수 출	24,362	32,805	21,361	25,348	26,290
수 입	28,404	39,042	28,318	34,466	30,428
외 환 보 유 액	3,952	2,686	4,831	3,431	2,400
총 외 채 잔 액	12,548	15,168	21,099	27,065	29,856
총외채잔액 / GDP	27.7	25.2	44.4	51.8	50.1
D S R	4.3	5.8	8.8	8.4	8.7

자료: IFS, EIU.

□ 외채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편

- 2007년 이후 벨로루시의 총외채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에는 GDP 대비 51.8%(271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음.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GDP 대비 50.1%(299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0년 123.8%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117.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높은 편

- 2010년 이후에 18억 달러 수준의 유로본드 발행, 2.5억 달러 상당의 국채 발행 및 총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 도입(1차분 8억 달러 지원) 등 부족한 외환보유액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에 외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10년 149.3%에 달함.
- 다만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8%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 유지

- 1994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루카셴코 대통령은 2010년 12월 실시된 대선에서 71%의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음. 서방 국가들은 선거과정이 자유, 공정선거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음.
- 최근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나 루카셴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안정적인 편이고 군, 안보 및 사법 집행기구 등 관료층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으며 언론 통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분간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치구도에 별다른 변화는 예상되지 않음.

□ 야당세력은 미약한 편

- 통합시민당(UCP), 벨로루시인민전선(BPF), 벨로루시사회민주당(BSDP) 등 야당은 2010년 12월 대선 이후 거센 탄압에 시달리며 입지가 더욱 약화되었음. 야당 대선 후보들은 투옥되거나 가택연금 조치가 내려졌으며 상당수의 야권 세력들은 타국으로 망명하기도 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반대세력 및 언론 통제를 통한 사회 안정 유지

- 루카셴코 대통령은 야당 등 반대세력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력한 저항세력이 없어 당분간 큰 사회 불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실질임금 인상, 각종 보조금 지급 등 선심성 사회보장성 지출을 확대하며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어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음.

□ 벨로루시 주요 도시에 침묵시위 발생

- 2011년 6월 이후 매주 수요일 벨로루시 주요 도시에서 일부 야당세력 및 젊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침묵시위가 열리고 있음. 이들은 주장을 내세우는 구호나 플래카드 없이 집결하여 박수를 치거나 핸드폰 알람을 동시에 울리는 방식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평화적으로 표출하고 있음.
- 경찰은 침묵시위 참가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투옥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 침묵시위 확산 열기는 수그러들고 있음.

3. 국제관계

□ EU 및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 악화

- 2010년 12월 부정선거를 통해 루카셴코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 이후 EU 및 미국은 벨로루시 정부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음. 대선 이후

야당 등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면서 EU는 2011년 초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부 고위관료 175명에 대한 입국금지령 및 EU 관할권 내 사유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내렸음.

- 2011년 6월에는 입국금지령 대상자를 확대했고 3개 벨로루시 국영기업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그외에도 벨로루시 정부가 국내 반대세력 탄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등 관련 물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린 바 있음.

□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강화

- 러시아는 2011년 6월 벨로루시에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등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
- 양국간 관계는 2010년 초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등 에너지 수출 관련 잦은 마찰이 있어왔으나 러시아 정부는 벨로루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소요사태 없이 현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0년 7월 발효된 벨로루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3국간 관세동맹은 벨로루시 무역구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동년 12월 벨로루시가 공동경제구역 설립협정을 비준하면서 2011년 1월 1일자로 3국간 원유수출세를 포함한 무역장벽이 철폐되었음. 벨로루시는 러시아로부터 무관세로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2011년 기준 약 13억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09년 말부터 IMF 대기성차관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

- 벨로루시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4.6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이를 정상상환 중임.

* IMF와 8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구제금융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IMF는 벨로루시의 인권탄압 현황 개선과 강도높은 정치 경제구조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내에 대기성차관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2010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8억 달러, 중장기 19.4억 달러로, 이 중 단기 2천만 달러(0.1%)가 연체 중으로 연체금액의 비중은 미미하며, 회수불능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국제시장평가

□ 벨로루시의 국가신용등급은 낮은 수준

○ OECD는 벨로루시의 국가신용등급을 1999년 이후 최하등급인 7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11년 1월에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과도한 외채규모 및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이유로 7등급을 유지함.

○ S&P와 Moody's는 동국을 각각 B-(2011. 9.)와 B3(2011. 7.)로 평가하고 있으며 Fitch는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Euromoney: 90/186('10. 3.) -> 96/185('10. 9.)

* I.I.: 135/178('10. 9.) -> 130/178('11. 3.)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bank : 인수불가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 인수불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 (2011.10)	D2 (2007.10)
OECD	7 (2011.1)	7 (2010.1)
S&P	B- (2011.9)	B (2011.5)
Moody's	B3 (2011.7)	B2 (2011.3)
Fitch	-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10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6,926만 달러 수준

- 양국은 1992년 2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벨로루시 수출액은 3,009만 달러, 수입액은 3,917만 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합성원료, 자동차 및 농약, 의약품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유리제품, 광학기기 등임.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 벨로루시 해외직접투자는 없음.

<표 4> 한·벨로루시 교역 규모

단위: 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5,334	2,380	3,917	광물제품, 화학제품, 금속, 의류
수 입	1,636	837	3,009	기계설비, 식품
합 계	6,970	3,217	6,926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벨로루시는 2010년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세 및 정부의 선심성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국제 식료품 가격 인상 및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인해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고인플레이션이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GDP 규모 대비 외채수준은 과도한 편으로 특히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149%를 상회하고 있음.

- 1994년 취임 이래 루카셴코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통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2010년 말 4선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장악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사회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음.
- 벨로루시 정부는 외환보유액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6월 러시아로부터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도입하고 2011년 초에 벨로루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3국간 자유경제구역 설립협정을 비준하는 등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동 차관의 추가인출을 위한 선결조건인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국영기업 정부지분 매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책임조사역 허 정 옥 (☎02-3779-5708)
E-mail: johuh@koreaexim.go.kr